

2024.10.18.~19. 삼구회 시간여행 / 소회보고 최성만

이번에 삼구회 시간여행에 다녀오기 잘 했다.

전날 감정이 출렁이는 일이 있어 약간 흥분한데다 잠이 오지 않은 나는 새벽에야 잠자리에 들며 자명종을 7시에 맞춰놓았다. 자명종이 울렸을 때 서너 시간밖에 자지 않았지만 몹시 피곤하지는 않았다. 잠시 더 누워 뒤척이다가 일어나 배낭에 주섬주섬 이것저것 챙겨 넣고 화정역으로 향했다. 대곡은 화정에서 한 정거장이다. 카카오맵에서 찾아본 8시 30분 서울행 경의중앙선 열차 시간은 정확했다. 서울역에 내린 나는 석양, 종진, 승범이와 만나 대전을 경유하는 포항행 KTX에 올랐고 불과 1시간여만에 대전에 도착했다. 대전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네댓 정거장인 '판암' 역에 내려 점심 식사자리인 '이도설렁탕'을 찾아 갔다.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가니까 안내문이나 지도를 찾아보느라 수고하지 않아도 되어 너무나 편했다. 수육과 대전막걸리를 먼저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창호를 비롯해 친구들이 속속 도착했다. 열 명 정도가 모였다.



2024. 10. 18. 왼쪽부터 김경수, 문창호, 손남국, 최종진, 류석양, 최성만, 정택원, 문용관, 노승범, 강춘형.

일기예보에 따르면 비가 온 뒤 날이 쌀쌀해진다고 했지만 식당 안은 꽤 더웠다. 주인이 에어컨을 켜준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승용차 세 대에 분승해서 '대청호 오백리길' 공원 근처의 카페 '메리골드'로 향했다. 차 안에서 각자의 근황을 비롯해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가 뒤섞이며 오간다. 카페는 무척 컸고, 비예보도 있는데다 주중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 카페 2층에서 우리는 창밖으로 대청호가 내려다보이는 창가에 삼삼오오로 앉아 커피를 마시며 환담했다. 비가

제법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잠시 빗줄기가 멈춘 틈을 타 우리는 각자 챙겨온 우산을 들고 널따란 호수 주변에 잘 꾸며놓은 호젓한 데크길로 산책하러 나갔다. 흔히 바닷가에 가면 갯벌에서 조개껍질을 줍듯이 나는 데크길을 걸으며 길에 떨어져 있는 통통한 도토리들을 주웠다. 다람쥐 식량을 훔쳐간 셈이다. 걷다가 빗줄기가 굽어질라치면 곳곳에 있는 정자 안으로 들어가 비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 호수를 둘러싼 산에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호수 위를 떠가던 떼까우이 30여 마리가 갑자기 호숫가로 모여들어 껍뻍대다가 멈춰 서서 모두 한곳을 주목하는 희한한 풍경도 펼쳐졌다. 창호가 산책을 시작할 때 한사람씩 나눠준 과자봉지에 든 쌀 과자를 부서뜨려 던져 주자 거위들은 떼를 지어 무섭게 달려든다. 우리는 2킬로 정도 걷다가 메리골드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다시 승용차에 분승해 한참을 달려 저녁에 묵을 호텔을 찾아갔다. 이름이 꽤 긴 ‘굿모닝 레지던스 호텔 휴(Hue)’였다. 각자 배정받은 방에 올라가 여장을 풀었다. 방 열쇠는 따로 없었고, 카카오톡으로 받은 번호를 방문 번호키에 누르면 문이 열렸다. 7시에 근처 식당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지만 몇몇은 여장을 풀고 바로 내려와 그 식당에 미리 갔다. ‘남성고 24회 칠순 기념 시간여행’이라고 적힌 멋진 플래카드를 벽에 붙인 뒤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숯불구이로 저녁을 먹으며 테이블마다 많은 이야기꽃을 피웠다. 뒤늦게 도착한 친구들(송길용, 송구, 황호준, 김수현)까지 합해 모두 14명이었다. “철들면 죽는다”는 알쏭달쏭한 문희장의 말. 자신이 찍은 사진은 막사진이 아니고 인문학이 들어간 사진임을 강조하는 류대장의 사진철학.



왼쪽부터 송구, 정택원, 손남국, 문용관, 황호준, 노승범, 최종진, 송길용, 최성만, 문창호, 강춘형, 김경수, 김수현. 촬영: 류석양.

1) “거위”를 “떼까우”라고 전라도 지방에서는 부른답니다.··· 이 녀석이 우는 소리가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전원지역에서는 간혹 잡지키는 개대신 거위를 키운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esignsay&logNo=140058724656>

친구들은 특이하게도 내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대학시절 나에 대한 인상과 기억을 떠올리기도 한다. 간혹 기억의 퍼즐들이 신기하게 맞춰지는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한다. 창호가 챙겨온 칠순 기념 케이크도 잘랐다. 승범이가 그룹토크방에 이번 시간여행에서 케이크 자르는 행사를 제안했을 때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아 뻘쭘했다고 토로한다. 나는 나이 들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그리고 칠순 축하하는 자녀나 아랫사람들이 해주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우리끼리 자축하는 것이 민망해서 반응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친구들은 요즘은 칠순 같은 것은 당사자가 친구들과 자축하면 모를까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고 그래서 나도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 동창들, 특히 3학년 9반 동창들은 졸업하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마치며칠 전 만났다가 다시 만난 것 같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든다. 그래서 '시간여행'이라고 하는 걸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시계가 멈춘 것일까. 이렇게 만나면서 다시 젊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이제야 비로소 늙는 것일까.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길용, 종진, 경수와 당구장을 찾아가 갠빼이(편 갈라 치기)를 즐겁게 쳤다. 자정 무렵 호텔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바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8시쯤 되었다. 지하1층에 내려가 조반을 들고 올라온 나는 짐을 챙겨 9시 직전에 로비로 내려왔다. 바쁜 일정이 있는 친구들 몇은 벌써 돌아갔다.

우리는 다시 승용차에 분승해 '한밭수목원'으로 갔다. 수목원은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천천히 걸으며 산책하기 안성맞춤이었다. 주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있어서인지 수목원은 차들과 사람들로 북적였다. 친구들과 이야기에 몰입해 걷다보니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 나중에 다시 찾아와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수목원을 둘러본 뒤 우리는 김수현 친구가 경영하는 'KLAB'이라는 회사를 방문했다. 초정밀 계측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글로벌 기업이었다. 세균이나 수질오염을 단 몇 초만에 측정한다니 놀랍다. 회사 설명을 흥미롭게 들은 우리는 방문 기념으로 각자 '성심당'에서 만든 튀김소보로 빵과 텀블러도 선물로 받았다. 이어 근처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몰 식당가에 있는 어느 중국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서울 방향으로 올라갈 친구들이 분승해 대전역으로 갔다. 태위다 준 친구들은 손남국, 문창호, 황호준이었다. 역 근처에 시간을 보낼 만한 카페나 호프집을 찾았지만 마땅한 곳이 눈에 띄지 않았다. 그 새 경수는 itx를 타고 평택으로 갔고, 춘형이는 SRT를 타고 강남으로 갔다. 현대식 건물인 대전역 청사는 경부선 한 가운데 있는 역으로서 승객들로 북적였지만 역 주변에는 재래시장(중앙시장?)을 비롯해 좁고 낡은 길과 건물들이 가득해 참으로 대조적인 풍경이었다. 재래시장 투어를 하고 다시 청사로 들어온 우리는 다행히 앉을 곳을 찾아 열차가 올 때까지 잠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승범이가 사온 감귤을 까먹고 있는데 그 새 송길용 친구가 어디를 갔다 왔다. [건강교실] 때도 그랬듯이 예의 선물(아담하게 포장한 오뎅)과 캔맥주를 사와 나눠준다.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을 어찌지 못하는 친구이다. 15시 49분 서울발 KTX를 타고 잠시 즐다가 보니 서울역이다.

이번에 번개같이 흘러간 시간여행 행사를 조직하는 데 문화장과 류대장이 가장 많이 애썼다. 수고에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삼구회 기금으로 우리만 이런 호강을 누린 것 같아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미안하기도 하다.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이 모여 학창시절의 아련한 추억, 그간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